

희토류, 북한 매장량 “수천만톤”

3면이 바다로 희토류 형성에 유리 ... 수출 통해 외화벌이 의도?

북한 조선중앙TV는 7월30일 반도체 등 첨단제품 생산에 쓰이는 희토류 금속이 북한지역에 많이 매장돼 있다고 보도했다.

<21세기 산업의 비타민 희토류원소> 제목의 기사에 북한 국가과학원 지질연구소의 반현욱 박사의 말을 인용해 “우리나라에는 희토류 광물자원이 많이 매장돼 있을 뿐만 아니라 매장된 희토류 자원의 품질도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반현욱 박사는 “세계적으로 희토류 광상은 바닷가 모래광상에 넓게 분포돼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크고 작은 강·하천이 넓게 분포돼 있어 희토류 광상 형성에 유리한 지질학·지리적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희토류 광상연구와 탐사작업을 계속하면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희토류 광물 자원을 개발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7월23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도 김홍주 북한 국가자원개발성 부국장의 말을 인용해 “북한에 약 2000만톤의 희토류가 매장돼 있다”고 보도했으며, 7월3일에도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북한지역에 희토류 수천만톤이 매장돼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이 최근 희토류에 관한 기사를 연이어 내보내는 것은 국제적으로 희토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자원 수출을 통해 외화벌이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8/01>